

여직원 부당한 임금차별 억울

평생 근무해도 대졸초임보다 낮아 90.9.5

나는 두산산업에서 10년동안 근무해오다 지난 7월27일 부당해고를 당한 사무직 여성노동자이다. 두산산업에서는 여직원에게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남녀간 임금의 격차가 심해 고졸 여직원이 평생(25년)을 근무해도 대졸 남직원의 초임보다 낮은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산산업 노동조합은 지난 2년동안 여직원 장기근속 수당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 쪽 이아무개 여사는 지난 7월6일 임금교섭때 “여직원이 10년, 20년 근무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차라리 나이 어린 여직원을 쓰겠다”고 여직원들을 모독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직원들은 7월11일 모임을 갖고 경영진의 여직원 모독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

직원 전체가 하루 공동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12일 1백30여명의 여직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공동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했다.

회사쪽은 7월27일 여직원회 회장에게 1개월 감봉, 고참여직원 2명에게 각 1개월 감봉, 그리고 나에게서는 해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나는 이러한 부당한 횡포에 맞서 8월24일 해고무효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회사 안에서는 “10년간 근무한 언니도 해직시켰는데 너희들도 그꼴 될래? 너는 다치지 말아야지”라는 등 엄포와 사탕발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 개인이 재벌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나의 작은 싸움이 가진자의 횡포를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 정 숙 <30·경기도 고양군 신
도읍 용두리 404-3>